

강화되는 재건축 기준

최근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주거환경의 파괴,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망친다는 여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건축물의 수명도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승인권자는 사업자가 신청하여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97년 12월 13일자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기준 일부를 강화하였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종래 주택조합에서 임의로 안전진단을 하던 것을 시장 등(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안전진단이 필요없는 노후·불량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을 선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얻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는 재건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붕괴 등으로 긴급히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경우는 시장 등이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서울시에서는 '97년 3월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현행의 재건축기준으로는 고층 고밀 재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일조·통풍·조광권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공공시설과 기존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점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이 훼손에 따른 적절한 보완대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승인된 76.2%가 20년 미만의 건축물로서 국가재원의 낭비는 물론 철거로 인한 건축폐자재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목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400%인 용적률을 300%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정비하고 재건축 전에 레노베이션(Renovation)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사업화, 고밀 아파트의 재건축기금적립제도 문제 등도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건축문제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119, 건축비평 - 음식과 의학과 건축 이야기

Food, Medical Science and Architecture Criticism

이종건 / 동명정보대 건축학부 교수

by Lee Jong-Keun

음식 이야기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사람마다 또 지역에 따라 입맛이 다르다고들 한다. 간은 그만큼 땅에 붙어서는 사람들과 영겨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요즈음 세월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총알음식(Fast Food) 앞에는 지역도 문화도 역사도 쪽을 못쓴다. 빅맥, 와퍼, 프렌치 프라이, 콜라 등의 제국주의 문화는 문만 열면 저항군 하나 거치지 않고 남의 땅을 바로 정복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햄버거와 콜라는 왜 소련, 한국, 중국, 프랑스,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거침없이 파고드는가? 인종과 지역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미각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사람은 자기 껍데에 잘 넘어간다. 우선 유리한 것으로 나중 손해 볼 때가 한두 번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돼지처럼 어리석은 유희를 거듭한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들었다. "맛있는 돼지고기 마련법 :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면, 돼지는 애오라지 그것 때문에 꿀꿀거리며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 때 앞이 구부러진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때린다. 돼지는 놀라서 도망가지만, 이내 또 음식 생각에 또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쇠꼬챙이로 돼지의 머리를 수없이 때려 결국은 맛있는 고기를 장만한다." 돼지만 그럴까? 우리는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부질없는 처신머리 역사를 거듭 목격하고 있다. 돈 욕망에 갇혀 무엇이든 팔아먹는 꼴들을 어디 서든 본다.

얕은 맛과 깊은 맛이란 게 있다. 이미 까마득한 옛날, 플라톤(혹은 소크라테스)은 세 가지 음식을 논하고 있다. 입, 몸, 그리고 영혼에 좋은 음식. 아이들은 입이 원하는 음식을 찾는다. 철이 좀 들면, 맛은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원한다. 미디어를 통해 가끔 보는 소위 문도기념식 식사법은 극단적인 경우다. 사람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라 그 다음은 영혼(혹은 정신)을 걱정한다. 육식을 먹으면 포악해지고 채식 식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한다는 소위 유추식 사고 덕분인가? 심지어 어느 종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먹었던 과일을 통해 순수한 본래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시비는 그만두자. 분명 맛은 여러 차원에 걸쳐 있음을 일단 접수해 보자. 집밖의 음식들이 대개 그렇지만, 맛을 조미료에 기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음식재료 자체로부터 오는 맛이 있다. 인공의 맛에 길들여

저 자연의 맛이 거북한 사람이 여럿, 아니 대다수 아닐까? 앞서 말한 햄버거와 콜라가 활개를 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알은 맛이 돈의 욕망과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의학 이야기

의학은 페니실린 발견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소위 근대(혹은 현대) 의학의 시발이다. 어떤 국부적 질병이라도 전 신체에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고전방식과 달리, 이제는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의학은 그 방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요즘, 심각한 도전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소인(素因)이 불명료하거나 직접 처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각종 종양과 신경증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대체의학은 말 그대로 근대의학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가시적인 성과 또한 거두고 있다.

대체의학은 근대의학이 포기한 많은 경우들을 회생시켜 일종의 신비함마저 띤다. 환부에 대한 직접치료에서 간접치료로 기본 틀을 바꾸고 있는 대체의학은 비교적 간단한 원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몸 전체를 북돋우어 스스로 질병을 이기게 하는데, 진단은 대개 넘침과 부족함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며, 신체적 균형을 회복시켜 활기를 찾게 하는 것이 기본원리다. 치료방식은 철저히 자연주의에 입각한다. 인공음식을 배제하고 자연식을 따른다. 햄버거나 콜라, 조미료나 통조림 류는 독약이다. 가급적 맑은 공기, 충분한 운동, 햇빛, 바람 등에 전신을 조율한다.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가짐이 수반된다. 몸과 마음의 합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입의 음식에서, 육(肉)의 음식,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영(靈)의 음식단계라고 할까? 어쨌든, 알은 맛은 생명의 적인 셈이다.

건축 이야기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부도를 맞았다. 부도로 인한 자주성의 상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기업부도의 주원인은 낮은 자기자본율에 있다. 운영을 남의 돈에 심하게 의존한 결과다. 지금 우리의 건축문화는 어떠한가? 건축문화의 우리 자본율은 얼마나 될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과연 진실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쓰는 어휘 중 얼마가 우리 것인가? 개념은 또 어떠한가? 우리 땅에서 자생한 것이 몇이나 있는가? 실천은 어떤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진실로 창조적인 건축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는가? 우리 건축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음을 전제하고, 신토불이 대체의학의 관점에서 다음의 실천을 상상해 본다.

더 이상의 서구건축은 일체 중단하자. 관장 또는 금식의 기법으로 몸의 독소를 배출하듯, 가급적 서구의 언어

와 의식을 비울수록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 풍토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그곳을 보살피며 우리 건축이 자생하기까지 일체의 보살핌을 아끼지 말자. 우리의 낱말 하나라도 찾고 삶의 방식 하나라도 회복하자. 그것은 우리의 전 활동 특히 인문학으로 건축의 활동을 확장함을 포함한다. 건축이라는 부위에서 우리의 삶의 역동적 전체로 관심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신토불이 건축'은 살과 땅, 그리고 풍토와 삶의 석임을 전제로 한다. 풍토를 삶과 유리시켜 자칫 보수 전통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아름다운 전통마저 죽이는 짓이다. 건축가 고주석의 경우처럼 "자연과의 조화," "지형의 순응," "무(無)와 공(空)," "마당," "기(氣)철학" 등의 정태적(情態的) 관점으로 전통건축을 읽는 태도는 위험하다. 기(氣)의 역동성과 생명의 꿈틀거림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기는 응당 유교사회의 조선시대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 다른 체(體)로 나타나야 한다. 설령 우리의 전통색이 흰색일망정, 그것은 삶의 현장에 대응하여 때로는 텅텅한 삼베의 색으로, 때로는 눈부신 눈의 색으로, 때로는 고운 모시의 색으로, 때로는 역설적인 검정색으로 그 양태가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법이다. 전통건축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늘날의 삶과 섞여 역동적인 창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단지 구속이요 껍질일 뿐이다.

동시에,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간(肝)에 해당하는 건축비평을 살려야 한다. 비평없는 건강한 문화란 가능성이 한 것일까? 지금처럼 실무건축가와 건축계획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비평이 기본이 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건축가처럼 비평가도 문화적으로 걸러 생산해야 한다. 문학비평이나 예술비평이 아닌 한, 문단에 등단하는 것과 건축비평 행위는 별개다. 마치 주석처럼 비평이 작품 뒤에 따라붙는 기생성도 탈피해야 한다. 비평의 수반으로 작품성을 높이듯 하는 우매함도 금물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주례비평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전공적인 안목을 결여한 잠문 비평도 널려 있다. 알은 맛과 깊은 맛, 육의 음식과 영혼의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비평이 무성하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혼미하고 답답한 형국일수록 비평이 절실하다. 사태를 직시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비평. 그 뜨거운 창조적 활동없이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토불이 대체의학이란, 대체의학이되 몸을 우리의 풍토에 맞추어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박연암(朴燕巖)이 이르기를, "산천풍경 땅이 중국과 다르고, 언어요속(言語謠俗) 시대가 한당(漢唐)이 아니다. 우리가 만일 중국의 법을 흉이나 내며 한당(漢唐)의 체(體)를 답습이나 한다면, 같은 그럴싸 할는지 모르나 실은 신통치 못한 거짓일 뿐이다. 우리 나라가 크지는 못하나 몇몇한 국가요 옛날부터 검박한 백성이 여러 가지 미숙(美俗)을 이루며 살아 왔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살려질 때 창작이 되는 것이요, 진기(眞機)가 나타나는 것이니 남의 것을 흉내내며 꾸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홍, 한국사상의 방향,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연구 상권, 1982, 동명사, pp.18-19) 또한 세종 대왕은 "한국인은 중국인과 상기(盛氣)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중국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각형의 물건을 원의 그릇에 넣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김용운, 원형의 유혹, 1995, 한길사, p.47) 모두 신토불이를 지지하는 말이다.